

멕시코 판사선출 투표 종료... “직접투표, 전세계서 처음”

유권자 1억명이 대법관 등 881명 선택...최종 투표율 저조 전망 “개표 완료에 열흘 안팎 소요”...부정선거 의혹, ‘투표 보이콧’ 집회도

멕시코에서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특별선거 투표가 1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 동안 진행된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대법관 9명을 포함해 모두 881명의 연방판사를 직접 뽑기 위해 각 후보에게 부여된 번호를 투표용지에 직접 써넣은 후 투표함에 넣었다.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된 후보자 규모는 3천306명이다. 일부 지역에서 유권자들은 추가로 각 지방을 관할하는 사법부 구성원을 함께 뽑았다.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배우자와 함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후 “민주주의 만세”라는 소감을 밝혔다고 멕시코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지난해 퇴임 후 공개 행보를 삼가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 역시 치아파스주(州) 팔렌케에서 투표하고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

멕시코 판사 직선제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해 도입한 정책이다. 앞서 멕시코에서는 의회 의결을 거쳐 모든 법관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

대법관 정원 감축(11명→9명), 대법관 임기 단축(15→12년),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법관 보수의 대통령 급여 상한선 초과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뤄졌다.

이후 멕시코 상원은 무작위 예비 뽑기 방식으로 올해 선거를 치를 대상 법원을 선정했다. 나머지 지역의 법관은 2027년 선거에서 선출한다.

AFP통신은 사법부 내 모든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나라는 멕시코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유권자들이 판사를 직접 선출하고 있다.

멕시코 선관위는 전체적인 개표 완료까지 열흘 안팎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식적인 최종 결과는 오는 15일께 나올 것으로 일간 엘 피아스는 내다봤다.

과달루페 타데이 멕시코 선관위원장은 투표 개시 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오늘 단순히 판사 개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위한 본보기를 택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엘우니베르살과 레포르마 등 현지 언론은 홍보 부족과 낮은 관심도로, 최종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표소는 대선이나 총선(17만여개)의 절반 수준인 8만4천여개만 마련됐다. 전



1일(현지시간) 멕시코 오악사카(와하카) 테오티틀란멜바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주민이 판사 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체 유권자 규모는 1억3만7천888명(멕시코 선거 관리위원회 집계 기준)이다.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됐다.

선출돼야 할 직위가 많다 보니 유권자 1명이 최소 6장에서 최대 13장까지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일부 유권자는 일종의 ‘키링(지팅) 용지’를 가지고 투표소에 온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를 주름지게 여러 겹으로 접은 형태가 악기와 닮았다며 현지에서 ‘아코디언’이라고 부르는 이 용지에는 주로 친(親)여당 성향 판사 후보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한다.

멕시코 선관위에서는 미리 관련 동향을 접하고 투표소에 지참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코디

언을 들고 투표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일간 레포르마는 보도했다.

치아파스와 콜리마르 등지에서는 투표용지가 대거 사라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멕시코시티에서는 판사 선거에 반대하는 이들이 ‘투표 보이콧’을 선언하며 정부를 규탄하는 거리 행진을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美 콜로라도주 거리서 화염병 공격 용의자 “팔레스타인 자유를” 외쳐

이스라엘 인질 지지 모임 겨냥한 듯

1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시에서 친(親)이스라엘 행사가 열리던 현장 근처에 한 남성이 화염병을 던져 6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AF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볼더 시내의 한 거리에서 45세 남성이 “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화염병으로 추정되는 발화 물질을 균중을 향해 던졌다.

미 연방수사국(FBI) 덴버 지국장 마크 미할렉 특별수사관은 이날 공격으로 6명이 화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67~88세 사이의 고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초기 사실들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은 특정 대상을 겨냥한 폭력 행위가 명백하며 FBI는 이를 테러 행위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할렉 수사관은 용의자는 45세 모하메드 술리만이라고 밝혔다. 용의자는 범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다.

앞서 미 CBS 방송과 지역 언론들은 목격자들을 인용해 이날 열린 친이스라엘 모임 참가자들을 향해 한 남성이 화염병으로 보이는 것을 던졌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 유대인 단체인 반(反)예해손연맹(ADL)은 이날 엑스에 “오늘 볼더에서 열린 ‘던 포 데어 라이브즈’ 행사에서 발생한 공격에 관한 신고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ADL에 따르면 이 행사는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납치된 이스라엘 인질들을 지지하기 위해 지역 유대인 공동체 구성원들이 매주 모여 함께 달리기나 걷는 행사다.

한편 볼더 지역 경찰은 이번 범행이 용의자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폴란드 대선 ‘친트럼프’ 野후보 나브로츠키 당선

1일(현지시간) 치러진 폴란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민족주의 우파 성향의 야권 후보인 무소속 카를 나브로츠키(42·사진)가 당선됐다.

2일 AFP,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개표 결과 나브로츠키 후보가 50.89%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친유럽 자유주의 성향인 집권 여당 시민플랫폼(PO)의 라파우 트사스코프스키(53) 후보는 49.11%를 얻었다.

이번 대선은 유럽연합(EU)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해온 여당과 폴란드의 국익을 우선으로 보는 민족주의 우파 야당 법과정의당(PIS)의 맞



대결 양상으로 치러졌다. 나브로츠키 후보는 무소속이지만 PIS의 지지를 받았다.

보수 역사학자인 나브로츠키 후보는 폴란드 헌법이 유럽법에 우선한다며 유럽 난민협정에서도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적극 협력해 안보 불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유럽·친트럼프 정책을 내걸었다.

그는 최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기도의 날 행사에 찾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사

진을 찍고 이를 선거전에 대대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지난달 치러진 1차 투표에서는 13명이 출마했지만,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어 1위인 트사스코프스키 후보(31.38%)와 나브로츠키 후보(29.54%)가 1일 결선을 치렀다.

나브로츠키 후보는 1차 투표에서는 트사스코프스키 후보에 소폭 뒤처졌지만 갈수록 격차를 좁히면서 결선에서는 승리했다.

AFP는 이번 투표 결과가 나토와 유럽 국가의 양극화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짚었다.

나브로츠키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그간 폴란드 정부가 추진해온 진보적 정책들이 대부분 중단되고, EU와 폴란드의 관계도 결긋러질 수 있다고도 AFP는 내다봤다. /연합뉴스

日 고향 주민 등록제 추진 지역 시설물 이용시 우대

일본 정부가 ‘고향 주민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지역 활성화 정책인

‘지방창생(地方創生)’ 기본 구상안에 담긴 이 제도는 일본 시민이 거주지 이외 고향 등 자신이 희망하는 기초 지자체를 선택해 영에 등록하면 지역 소식을 안배하고 지역 시설물 이용 시에도 우대해주는 방안이다.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도시 인구의 지속적인 지방 연계를 유도해 지방 이주 등

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도시민이 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구상은 일본이 2008년 도입한 고향 납세제와 비슷하다.

일본 정부는 기본 구상을 구체화한 ‘종합전략’을 올해 안에 만들 계획이며 총 1억명의 등록(중복 등록 포함)을 목표로 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파크골프 모든 것!

실내연습장 완비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파크골프 샵 (골프채, 각종용품, 용구)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